

##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 허용 후폭풍 안갯속 2019 고입 전망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들에게 일반고 지원 기회가 열렸다.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 지원 금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결 이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외고·국제고까지 포함해 복수 지원을 허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 이에 따라 학생들은 고교 지원 기회가 어느 정도 보장된 반면, 지원 전략은 수정해야 하는 불편함을 얻게 됐다. 7월 말 시도별 고교 배정 세부 계획안과 8월 대입 개편안도 변수로 남아 있다. 현 시점에서 학생들이 알아야 할 2019 고교 배정 변화와 향후 고입 판도를 간단히 짚어봤다.

취재 정나라 기자 lena@naeil.com  
 도움말 박웅성 입학관리실장(민족사관고등학교)  
 조경호 입학홍보부장(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속고등학교)  
 최이권 교사(서울 연주중학교)·허철 수석연구원(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사진 연합

### 일반고 지원 가능해졌지만, 양손의 떡 아냐

헌재의 판결 이후 지원자들의 관심은 배정 방법에 쏠렸다. 원서 접수 시기가 같은 자사고·일반고를 동시 지원, 결과가 나오면 원하는 학교를 골라 진학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이가 많았다. 교육부는 차등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4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고 배정을 단계별로 진행하는 특별·광역시 경우 2단계에, 일괄 추첨 배정이 많은 도 단위에서는 2순위부터 진학 희망 일반고를 접수한다(그림).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 지원자들에게 일반고 선택권을 주되 일반고에 1순위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역차별은 방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가이드라인은 현재 고교 정책 방향과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고려한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만 보면 거주지에 따라 고입 지원 기회 차이가 있다. 전 지역이 평준화지역인 특별·광역시의 후기 선발고 지원자들은 과학 중점 학급 운영 학교 지원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만, 거주지 내 희망학교 배정 확률은 낮지 않다. 이와 달리 평준화·비평준화 지역이 공존하는 도

단위 거주 지원자들은 탈락시 희망 일반고 배정 확률이 낮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1단계 배정 비중이 전체의 20% 안팎이고, 2단계에서 거주지 인근 학교에 40%를 배정하는 구조다. 반면 선복수 지원 후 일괄 추첨 방식이 일반적인 도 단위 평준화 지역의 1지망 학교 배정 확률은 대개 80%를 넘는다. A학교의 모집 정원을 1지망 학생들로 채울 경우 이 학교를 2지망으로 적어낸 학생들은 지망 순위가 밀려 상대적으로 비선호 학교로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 도교육청 관계자는 “7월 넷째 주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나 배정 방법은 기존 시스템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현재가 문제 삼은 것은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 지역 일반고 지원 기회 자체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지, 일반고를 1순위로 지원한 학생들과 동일한 기회를 주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대부분의 지역 교육청이 공감한 상태”라고 전했다.

### 후기 선발고 경쟁률 상승 전망

중복 지원 허용에 따라 중학교 진로진학 전문가들은 올해 학생들이 선호하는 후기 선발고의 경쟁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서울 연중중 최이권 교사는 “동시 선발고 배정 불이익은 선호도가 높은 특목·자사고에도 타격을 줄 수 있었다. 민사고, 상산고, 외대부고, 하나고 등 전국 단위 자사고와 대원외고, 경기외고 등 수시·정시 양측에서 실적을 낸 일부 외고가 그 대상이었다. 한때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들 학교의 지원 자원이 많은 지역은 탈락 후 일반고 배정에 큰 불이익이 없다. 과고 혹은 일반고로 방향을 틀었던 학생들이 다시 진

학을 고민하기 시작해, 지원자가 늘 것 같다”고 말했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허철 수석연구원은 “현재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시·도교육청은 올해 고교 배정 방식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세부 계획안이나 재지정 문제가 변수이긴 하나, 몇 년간 위축된 학생들의 지원 심리가 크게 완화된 점, 올해 중3 학생 수가 소폭 증가한 점, 정시 확대를 언급하는 대입 개편안 등을 고려하면 대입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 받는 후기 선발고의 경쟁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밝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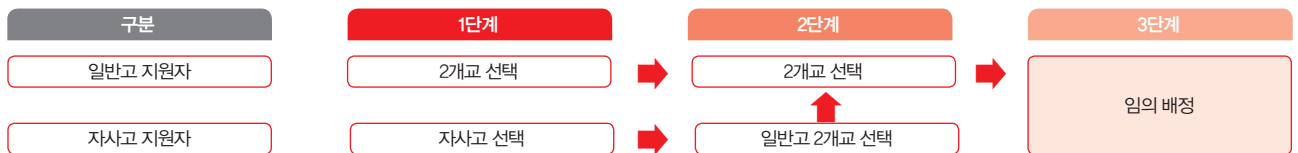
### TIP

#### 고입 계획 수정안·학교별 입학 요강 체크 포인트

- 합격 결과 발표일** 후기 선발고 합격자 발표 마감일이 2019년 1월 11일에서 1월 4일로 일주일 빨라진다. 일반고 배정에서 합격자들을 걸러내기 위함이다. 또 강원도처럼 12월 일반고 배정을 마칠 예정이었던 지역은 1월 4일 이후로 배정 결과 발표를 미뤘다.
- 전형 방법** 학교별 전형 요강은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외대부고·상산고의 지역 인재 전형도 유지된다. 외대부고 조경호 입학홍보부장은 “입학 전형 구조나 방법은 지난해와 같다. 후기고로 밀려 일정에 변화가 있다”고 말했다. 민사고는 3학년 2학기 성적이 내신평가에 반영되고 전형을 2단계로 축소하는 안이 유력하다. 민사고 박용성 입학관리실장은 “후기 전형 시행이 확정된 상태라 이에 맞춰 진행하려면 단계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형 방법은 그대로 유지한다. 면접, 체력검사를 2단계에서 같이 진행하는 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 지역별 고등학교 배정 방안 예시

#### ■ 특별·광역시



#### ■ 도 단위



자료: 교육부